

특별선교주일

연합감리교 학생주일



설교자료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

# 설교자료



연합감리교 학생주일 예배를 위해 아래 설교 자료를 활용하세요. 본 설교 자료는 독립적으로 사용되거나 함께 제공된 학생주일 예배 자료, 헌금 전 이야기, 어린이 자료 등과 아울러 사용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본 설교 자료는 이사야 2:1~5 및 마태복음 24:36~44의 말씀을 기초로 제작되었습니다.

**꽤** 많은 사람이 우리가 함께 읽은 종말에 관한 복음서 본문을 읽으면서 임박한 재난에 대한 두려운 감정을 느낍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 중에 나는 혹시 버려지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합니다.

어느 순간에든,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코비드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받은 충격과 미국 내 격동적 정치 환경의 영향, 임박한 교단 분리에 관한 불안을 헤쳐 나가면서, 우리는 최근 몇 년간 벼랑 끝에 선 것처럼 느끼곤 했습니다.

- 한편 미국 내 학생들에게는 총기 사고 대비 훈련을 하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 이 나라의 유색인종 어린이들, 특히 흑인 청년들과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경찰이 그들의 차를 세웠을 때 매우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배웁니다.

- 그리고 우리는 기후 변화가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미치는 분명한 영향을 보고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같은 여러 가지 위협(swords)은 겹보기에는 각각 달라 보여도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위기의 순간들마다 제 믿음과 강력한 공동체의 사랑은 제가 희망을 잃지 않게 하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젊은이들을 바라보고 (가능하면 몇몇 학생들의 이름을 말씀하세요) 이들이 지난 몇 년 동안 겪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이들을 향한 깊은 연민을 느낍니다. 또한 이들이 세례를 통해 맺었던, 세상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로 했던 서약을 실천하면서 굳건한 그리스도인 지도자로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한없이 자랑스



## 설교자료

럽기도 합니다.

연합감리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학생들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 런빌에 사는 아다지아 멜렛은 연합감리교 학생주일 헌금을 통해 마련된 소망의 선물 장학금(Gift of Hope Scholarship) 덕분에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의를 해결하고 그녀의 삶 속에서 체험했던 사랑과 후원을 다시 드러내는 치유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다지아는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던 교회 공동체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교육 과정을 후원했던 것은 그녀가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연합감리교인들이었습니다. 연합감리교회는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으로 그녀의 삶을 돌렸습니다. “...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깨어 있기만 하다면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는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 있는 중에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지금 이곳에 풍성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일상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그 와중에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뀝니다. 평범한 삶의 여정을 따라가는 중에 갑자기 바닥이 꺼집니다.

균형을 되찾고 꺼진 바닥을 보수하는 데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마음 졸이며 사는 일에 익숙해질지도 모릅니다. 많은 면에서 우리는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들로 삽니다.

**“예상치 못한 기쁨을 누군가에게 선물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연합감리교 학생주일 예물은 두려움의 위기를 가능성의 도구로 바꿉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 같은 악순환을 깰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기쁨을 누군가에게 선물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연합감리교 학생주일 예물은 두려움의 위기를 가능성의 도구로 바꿉니다.

어떻게 “이미와 아직”의 균형 가운데 살 수 있을까요? 종말을 기대하며 살지만 두려워하지는 않는 것 말입니다. 대강 절기 동안 우



## 설교자료

리는 매일의 일상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침범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기독교 공동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더 깊은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기뻐하라, 임마누엘, 곧 오시리라 이스라엘.”*

만일 오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마지막 날이고, 내일은 예수님께 우리의 삶에 대해 낱알이 아뢰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방식은 어떻게 바뀔까요? “지금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까?”라는 식으로 처벌이나 두려움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길을 걷는 법을 배우기 위해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꿈과 희망, 고통과 슬픔을 알고자 하고 더 깊이 이해한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 가족이라는 것을 온전

히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더욱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흔히 마지막 때를 세상의 파괴라고 이해하지만, 묵시(apocalypse)의 그리스어 원어는 “드러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념하는 학생들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미래를 위해 투자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들이 최고가 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실현할 수 있는 예물을 드릴 기회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고 대응할 때, 또 우리 안에서 우리로부터 비추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밤의 강도처럼 찾아오는 절망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함께 행하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